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 이 문제지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월가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실시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서빙 로봇을 만나 본 적 있으세요? (손을 드는 청중을 보며) 많이들 경험하셨군요. 그런데 이 로봇들이 단순히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잠시 기다린 후) 오늘은 최근 기술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하여,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직접 행동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AI가 화면 속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실제 공간에서 장애물을 피하고 물건을 집어 올리는 등의 물리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올해 초 CES 2026에서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 공학”이라고 선언하며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피지컬 AI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 1> 을 봐주세요. 이 표는 국내 서비스 로봇의 보급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로봇의 보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41%가 증가했는데, 이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절대적인 보급 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5년에는 1만 5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로봇들은 배달, 순찰, 조리,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 를 봐주세요. 이것은 올해 3월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공개된 현대차그룹의 이동형 로봇 플랫폼 ‘모베드’입니다.

모베드는 하나의 로봇 몸체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류 센터에서는 적재함을, 건설 현장에서는 카메라를, 학교에서는 안내 장치를 탑재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피지컬 AI는 하나의 범용 플랫폼이 다양한 현실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기술은 앞으로 제조, 물류,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서울AI페스티벌 2026’에는 이틀간 1만 7천여 명이 방문하여 로봇과 악수하고, 로봇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피지컬 AI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온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단순히 신기한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경험을 물어보고 그 반응을 확인하며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화제가 되는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 ③ 자신의 체험 사례를 제시하며 청중이 발표 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발표를 마무리하며 청중에게 기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당부하고 있다.

2.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자료 1)

연도	누적 보급 대수	전년 대비 증가율
2022	약 7,800대	-
2023	약 11,000대	약 41%
2024	약 13,200대	약 20%
2025	약 15,000대 이상	약 14%

(자료 2)

직재함 장착 시: 물류 로봇
카메라 장착 시: 촬영 로봇
플랫폼형 로봇 (기본)
- 네 바퀴 독립 구동
주요 사양
- 최고 속도: 시속 10km
- 최대 적재 중량: 47~57kg
- 동관 능력: 최대 20cm 연직 및 과속 방지턱
- 구동 방식: 4륜 독립 편심 메커니즘
- 플랫폼: 모듈식 설계
편심 메커니즘 상세
바퀴 들어 올림
연직/과속 방지턱 극복 과정 (최대 20cm)
통과
독립 조향 및 구동

- ① <자료 1> 을 활용하여, 서비스 로봇 보급 대수가 매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② <자료 1> 을 활용하여, 2023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원인을 피지컬 AI 기술의 도입과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 ③ <자료 2> 를 활용하여, 모베드가 기존 서빙 로봇보다 속도와 적재량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④ <자료 2> 를 활용하여, 모베드의 편심 메커니즘이 다른 로봇과 어떤 원리적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 ⑤ <자료 1> 과 <자료 2> 를 활용하여, 서비스 로봇의 보급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범용 플랫폼형 로봇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기존 AI와 피지컬 AI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어. 발표에서 기존 AI는 데이터 분석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피지컬 AI는 물리적 행동까지 수행한다니 범위가 확장된 거네. 나중에 피지컬 AI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더 찾아봐야겠어.

학생 2: 표를 보니 서비스 로봇 보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증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면 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 성숙기에 접어든 건지 궁금해졌어. 발표에서는 절대 보급 대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증가율 둔화의 원인도 알면 전체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3: 모베드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결합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 하나의 로봇이 여러 역할을 한다니, 개별 전용 로봇을 각각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설명한 기존 AI와 피지컬 AI의 차이를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발표에서 제시된 자료의 수치를 추가적으로 해석하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학생 3’은 발표에서 설명한 모베드의 특성을 근거로 비용 효율성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 짓고 있다.

[4~6] (가)는 학생회 토의이고, (나)는 토의 후 작성한 메모이며, (다)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우리 학교가 교육부의 ‘AI 중점학교’로 선정되면서 AI를 활용한 수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AI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여 학교에 건의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생 1: 현재 AI 도구는 주로 수학과 영어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AI가 제시한 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성형 AI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 교사가 실시간으로 학생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사회자: 안전 환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학생 1: 교사가 학생의 AI 사용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속어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학생 2: 모니터링 환경 구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AI의 답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존 교과와 별도로 ‘AI 리터러시’ 시간을 편성해서 AI가 만들어 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 저작권과 윤리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3: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별도 시간을 새로 편성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시수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교육부 지침을 보면 AI 중점학교는 초등 68시간, 중학교 102시간 이상의 AI 수업을 편성해야 합니다. 기존 시간을 재구성하면 추가 시수 없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

학생 1: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기존 교과 시간을 재구성하면 해당 교과의 본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 3: 그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AI 리터러시는 정보 교과의 ‘디지털 시민성’ 성취기준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교과 목표와 충돌하기보다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4: 저는 학생의 자기 점검 기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약 40%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AI 도구 사용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용 습관을 스스로 돌아보는 ‘디지털 사용 일지’를 작성하게 하면 AI 의존도를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 2: 디지털 사용 일지는 학생들의 자기 인식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네요.

사회자: 지금까지 안전한 AI 사용 환경 구축, 별도 AI 리터러시 교육 시간 편성, 기존 교과 시간 재구성 활용, 디지털 사용 일지 작성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나)

[건의문 작성을 위한 메모]

1. 현황: 우리 학교 AI 중점학교 선정 → AI 도구 수업 활용 확대. 문제 발생: 학생들의 무비판적 정보 수용, AI 의존도 증가.
2. 건의 사항 정리:
 - (ㄱ) AI 안전 사용 환경 구축: 교사 실시간 모니터링 + 유해 질문 자동 차단 플랫폼 도입
 - (ㄴ) AI 리터러시 교육의 교과 연계: 정보 교과·창체 시간 활용,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시수 부담 최소화
 - (ㄷ) 학생 자기 점검 체계 마련: 디지털 사용 일지 작성 → 자기 사용 습관 인식 + AI 의존도 자각 유도

3. 기대 효과: AI를 비판적·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

(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가 ‘AI 중점학교’로 선정되면서 여러 교과에서 AI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늘었으나, 동시에 AI가 생성한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거나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AI 안전 사용 환경의 구축을 건의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실시간으로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AI 사용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업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포함된 교육용 AI 플랫폼을 도입한다면, 안전하면서도 교육적인 AI 활용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AI 리터러시 교육을 기존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저작권 및 윤리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신설하기보다, 정보 교과의 ‘디지털 시민성’ 관련 단원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면 추가 시수 부담 없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AI 수업 시수 기준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 스스로 AI 사용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디지털 사용 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AI 도구 사용 빈도와 목적을 기록하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AI 의존 습관을 스스로 자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를 단순한 답 제공자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할 도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 AI를 비판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가)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의 배경과 주제를 제시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토의자의 발언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③ 토의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며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토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며 이후 과제를 안내하고 있다.
- ⑤ 토의 결과를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5.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학생들 사이의 경향을 근거로 안전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이 제시한 방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실행 방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학생 1’이 제시한 안전 환경 구축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사용 일지를 제안하고 있다.
- ⑤ ‘학생 1’은 ‘학생 3’의 대안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짚어 내고 있다.

6. (가)의 토의 내용이 (나)의 메모를 거쳐 (다)의 건의문에 반영된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학생 3’이 기존 교과 시간 활용을 제안한 것이 (나)의 (ㄴ)에 교과 연계로 정리되었고, (다)의 셋째 건의에서 교과 성취 기준과의 구체적 연결 관계로 구체화되었다.
- ② (가)에서 ‘학생 2’가 정보 판별 능력 부족을 지적한 것이 (나)의 (ㄴ)에 반영되었고, (다)의 둘째 건의에서 진위 판별과 윤리 인식의 체계적 교육 필요성으로 구체화되었다.
- ③ (가)에서 ‘학생 4’가 청소년 과의존 통계를 언급한 것이 (나)의 (ㄷ)에 반영되었고, (다)의 셋째 건의에서 과의존 위험군 통계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 ④ (가)에서 ‘학생 1’이 자동 차단 기능을 언급한 것이 (나)의 (ㄱ)에 반영되었고, (다)의 첫째 건의에서 차단 기능의 기술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 ⑤ (가)에서 ‘학생 3’이 시수 부담 최소화를 제안한 것이 (나)의 (ㄴ)에 반영되었고, (다)의 첫째 건의에서 교육부 시수 기준 충족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7. (다)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 건의 사항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반복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건의의 배경을 밝힌 후 건의 사항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되, 각 건의 사항 간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건의 사항마다 다른 학교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건의의 배경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각 건의 사항에서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를 함께 서술하고 있다.
- ⑤ 마무리에서 건의 사항을 요약하고, 학교 측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요청하고 있다.

8. 다음은 (다)의 건의문을 검토한 후 학생회가 나눈 대화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B]를 수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회장: 건의문의 셋째 건의에서 ‘디지털 사용 일지’의 구체적 효과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면 좋겠어. 일지를 작성하면 왜 의존도를 자각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완해 줘.

학생 부회장: 그리고 토의에서 나왔던 디지털 과의존 통계를 건의문에 활용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 ① 학생들이 ‘디지털 사용 일지’에 AI 도구 사용 빈도를 기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 자체가 습관이 되어 AI를 사용하는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약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는 기록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 ② 청소년의 약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디지털 의존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디지털 사용 일지’를 작성하면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③ 청소년의 약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는 AI 도구 사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사용 일지’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④ ‘디지털 사용 일지’를 작성하면 학생들은 AI가 제공한 답변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약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통계는 이러한 검증 습관의 시급성을 뒷받침합니다.
- ⑤ 청소년의 약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는 디지털 도구 의존이 광범위함을 보여 줍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사용 일지’를 통해 자신의 AI 사용 빈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사용 패턴을 파악하게 되어 무의식적인 AI 의존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9~11]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여 학교 신문에 실으려 함.

[초고]

오늘날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청소년의 학습, 소통, 여가 활동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디지털 과의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과의존이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여성가족부 진단조사에 따르면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4·중1·고1) 약 123만 명 중 약 21만 3천여 명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중복 위험군도 약 7만 9천 명에 달했다. 또한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전체의 약 40%가 과의존 위험 수준에 해당하며, 특히 고등학생의 고위험군 비율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과의존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과의존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 조절에 실패하면 실패감이 누적되어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과의존 위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또래 및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가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목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기기 사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학습·창작 등 생산적 활용과 단순 소비적 사용을 구분하여 자기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

9.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 디지털 과의존의 원인을 시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며 문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디지털 과의존의 개념을 정의한 후, 2문단에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디지털 과의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대응 방안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 ⑤ 2문단과 4문단에서 동일한 전문가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인용하여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의 [A]에 넣을 마무리를 쓰기 위해 세운 조건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무리 조건]

- 글 전체의 핵심 주장을 요약할 것
- 독자인 청소년에게 실천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디지털 과의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와 학교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 ② 디지털 기기는 양날의 검과 같다. 잘 쓰면 학습의 도구가 되지만,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족쇄가 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③ 우리는 디지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다. 이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으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 나침반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될 것이다.
- ④ 디지털 과의존은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해야 극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듯,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유일한 무대일 수는 없다. 화면 너머에도 소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디지털과 일상 사이의 균형을 직접 찾아가는 항해사가 되어 보자.
- ⑤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기를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이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 바란다.

11.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연구 보고서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2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집단은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나,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다만 사용 ‘목적’에 따른 분석에서는, 학습 목적 사용이 많은 집단은 전체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도 학업 성취도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ㄴ. 전문가 인터뷰
 “디지털 과의존 예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사용 시간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사용 행위를 성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 조절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ㄷ. 신문 기사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중학교 15곳에서 ‘디지털 균형 주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간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자신의 기기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시범 운영 결과, 참여 학생의 78%가 “자신의 사용 습관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① ㄱ을 활용하여, 기기 사용 ‘목적’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4문단에서 생산적 활용과 소비적 사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자율 조절 능력 발달에 기여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4문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 ③ ㄱ과 ㄴ을 활용하여, 사용 시간이 긴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점과 외부 통제의 단기적 효과를 결합하여, 3문단에서 과의존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강하면서 시간 제한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ㄷ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사용 내역을 기록·분석하는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결과를, 4문단에서 자기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추가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외부 강제보다 자기 성찰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견해와 실제 시범 운영 성과를, 4문단에서 제도적 지원의 방향이 자율 조절 능력 함양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강하는 근거로 추가한다.